



이은정, LPGA ★ 됐다

코닝클래식 연장 접전끝에 생애 첫 우승... 위성미 공동 3위, 신지에 17위

이은정(21)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제이미 파 오웬스 코닝클래식 연장전에서 생애 첫 우승을 차지했다.
이은정은 6일(한국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실베이니아의 하일랜드 메도우스 골프장(파71.6천428야드)에서 열린 대회 4라운드에서 4타차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함께 18언더파 266타를 적어내 모건 프레셀(미국)에게 동타를 허용했다. 연장전으로 끌려간 이은정은 다시 선 18번홀(파5)에서 2.5m짜리 버디 퍼트를 집어 넣어 파에 그친 프레셀을 따돌렸다.
이은정은 2005년 US여자아마추어 퍼블릭링크스 챔피언십 우승으로 주목을 받았지만 프로로 전향한 이후 별다른 성적을 내지 못했던 선수. 올 시즌에도

톱10에 한번도 들지 못했던 이은정은 무명의 설움을 말끔히 날려버리며 한국군단의 무서운 영건 대열에 당당히 합류했다. 이은정의 우승으로 한국 군단은 2주 연속 우승과 함께 시즌 5승을 합작했다.
사흘 연속 팬타를 휘두른 이은정은 마지막날에도 15번홀까지 1타를 줄이며 여유있게 우승을 차지하는 했지만 16번홀(파4)에서 티샷을 왼쪽 러프에 빠뜨리고 파퍼트까지 들어가지 않아 1타를 잃으면서 프레셀에게 2타차로 졌다.
더욱이 이은정보다 한조 앞에서 경기한 프레셀은 17번홀 페어웨이에서 웨지도 친 세번째 샷을 그대로 홀에 집어넣는 이글을 낚아 승부를 연장전으로 끌고 가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승리의 여신은 이은정의 편이었다.
연장전 첫번째 홀에서 프레셀이 그린 가장자리에서 친 버디 퍼트가 홀을 살짝 빗나간 뒤 이은정은 망설이지 않고 과감하게 친 퍼트를 홀에 떨어뜨리며 상금 21만달러와 함께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재미교포 위성미(20·나이키골프)는 7언더파 64타를 몰아치며 우승 경쟁에 뛰어 들었지만 선두와 격차가 너무 커 이선화(23·CJ), 김송희(21)와 함께 공동 3위(16언더파 268타)에 올랐다.
신지에(21·미래에셋)는 타수를 줄이지 못해 공동 17위(12언더파 272타)에 그쳤지만 상금 1만6천882달러를 보태 상금 랭킹 1위(101만8천21달러) 자리를 지켰다. /연합뉴스

■ 이은정 일문일답

다음은 이은정과 일문일답.
-아무도 예상치 못한 우승이었다. 소감은.
▲지난 대회에서 실수를 너무 많이 했다. 스코어보드도 보지 않고 경기에만 집중했는데 우승까지 했다. 아직 얼떨떨하고 우승이 실감이 안난다.
-골프는 언제 시작했나.
▲(경기도 포천) 동남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를 따라 골프를 시작했다. 당시에는 살을 빼기 위해 골프

“아직 얼떨떨... 우승 실감 안나요”

체를 잡았는데 선수의 길을 걷게 됐다.
-미국 대회에서 성적이 그다지 좋았다.
▲퍼트가 잘 되지 않은데다 작년 막바지에는 허리, 목디스크가 찾아왔다. 몸이 좋지 않아 쉬려고 생각하기도 했는데 웨지퍼팅을 성적으로 좋지 않아 올해도 조건부 시드로 대회에 출전해 왔다.
-연장전 버디 퍼트를 앞두고 긴장하지 않나.

▲긴장했다. 특히 4라운드 때 18번홀에서 너무 긴장했다. 그래서 볼을 라인에 맞춰놓고 그대로 쳤다. 홀라인이라 겁 오른쪽 끝을 보고 과감하게 때렸다.
-앞으로 계획은.
▲이번 대회 우승으로 US여자오픈과 브리티시여자로 출전권을 얻었다. 하반기에 더 열심히 연습해 좋은 성적표를 보여 드리겠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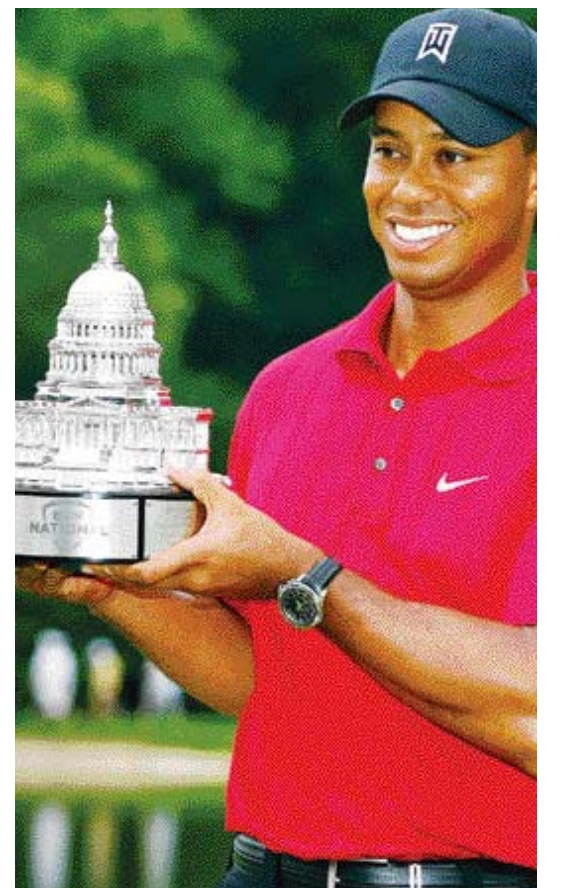
‘역전 불허’ 우즈 시즌 세번째 우승

PGA AT&T 내셔널

맛짱 뜬 앤서니 김 아쉬운 3위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가 재미교포 앤서니 김(24·나이키골프)의 도전을 따돌리고 자신이 주최한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AT&T 내셔널 우승을 차지했다.
우즈는 6일(한국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베데스다의 콩그레스빌 골프장(파70·7천255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4개와 보기 1개로 3타를 줄여 최종합계 13언더파 267타로 정상에 올랐다. 올해 2월 무릎 부상에서 복귀한 뒤 3월 아놀드 파머 인비테이션과 6월 메모리얼 토너먼트에서 우승했던 우즈는 이번 시즌 가장 먼저 3승 고지를 밟았다. 시즌 상금 400만달러를 가장 먼저 돌파(456만달러)한 우즈는 상금과 페덱스컵 포인트 부문에서 선두로 나섰다.

앞선 두 차례 우승을 모두 메이저대회 2주 전에 해냈던 우즈는 이번에도 16일 개막하는 브리티시 오픈을 앞두고 손맛을 보며 시즌 첫 메이저 사냥에 대한 가능성도 부풀렸다. 반면 우즈와 함께 공동 선두로 4라운드를 시작한 앤서니 김은 붉은 셔츠와 검은 바지의 우즈에 맞서 파란색 상의와 흰 하의를 입고 나왔지만 1오버파에 그쳐 최종합계 9언더파 271타. 지난해 우승 타이틀 방어에 실패하며 3위로 대회를 마쳤다. 시작은 앤서니 김이 좋았다. 1번홀(파4) 버디로 단독 선두로 치고 나가며 기선을 제압하는 듯했다.
그러나 5번과 8번홀(이상 파4)에서 한 타씩 잃는 사이 우즈가 6(파4), 7번홀(파3) 연속 버디로 전세를 뒤집었다.
반면 앤서니 김은 16번홀에서 2.5m 거리 버디 퍼트가 홀을 돌아 나오며 추격의 동력을 잃었다. 우즈는 선두 또는 공동 선두로 최종 라운드에 나선 47차례 대회에서 3번밖에 우승을 놓치지 않았던 ‘역전 불허’의 명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연합뉴스



KIA 부상병 귀환... 주말 곰 사냥

투·타 윤석민·김원섭 합류 전력 재정비
LG·두산 홈 6연전... 상위권 안착 관건



녹색 그라운드에서 혼돈의 중위권 싸움이 펼쳐진다.
지난주 원정 5경기에서 2승을 거두는데 그친 KIA 타이거즈가 광주로 돌아와 LG 트윈스, 두산 베어스의 홈 6연전을 갖는다.
6월 마지막 페이스가 급격히 떨어진 KIA는 지난 5일까지 11경기에서 4승을 거두는데 그쳐며 최근 2주간 승률이 0.363에 불과하다.
지난주 두산이 5연패로 부진하면서 KIA는 2위까지 치고 오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았지만, 뒷심 부족으로 승보다 더 많은 패를 기록하며 아쉬움을 남겼다. KIA가 주춤한 사이 롯데는 지난주에만 4승을 추가하며 3위 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두산·KIA·롯데·삼성·히어로즈가 근소한

승률차이로 맞물리면서 이번주 5개 팀의 순위는 매일 경기 결과에 따라 요동칠 전망이다.
지난 4일 한화와의 팽팽한 힘겨루기 끝에 9회말 통탄의 역전홈런을 맞은 뒤 2연패에 빠진 KIA는 LG와 주중 3연전을 갖는다.
올 시즌 양팀 전적은 7승1무1패로 KIA가 확실한 우위를 보이고 있지만 최근 덕아웃 분위기는 LG쪽에 기울다.
KIA가 4일 마무리 한기주의 시즌 8번째 구원 실패로 역전패를 당한 뒤, 5일에는 선발 서재응이 4방의 홈런에 4이닝 8실점으로 무너지면서 침체분위기가. 반면 LG는 주말 두산을 맞아 싸움이 3연승을 거두며 상승세다.
주말에는 난적 두산과의 대결이 기다리고

있다. KIA는 올 시즌 두산전에서 3승8패를 기록하며 승률이 좋지 않다.
그렇다고 경기가 일방적으로 진행될 것은 아니다. 두 팀은 한치 양보 없는 대결로 명승부를 연출하곤 했으나 KIA가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하며 5차례 역전패를 당했다. 이중 3패는 모두 한기주가 기록하고 있다.
4일 한화전에서 시즌 8번째 볼넷 세이브를 기록하며 조범현 감독에게 큰 속제를 안겨준 한기주가 유독 두산에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번주 불펜 운영에 비상이 걸렸다.
KIA는 이번주 부상병들의 귀환이 시작된다. 지난 3일 방방이를 다시 든 김원섭은 7일부터 1군 선수단에 합류해 실전 감각을 쌓게 된다.
부상으로 빠져있던 이용규·장성호·김선빈도 지난 주말 상무와의 2군 경기에서 출전해 컨디션 점검을 받았다. 아예 근육 뭉침으로 휴식을 취한 윤석민도 두산전 출격을 준비하는 등 전력 재정비가 차근차근 이뤄질 계획이다. 하지만 공백이 있었던 만큼 부상병

프로야구 중간순위 (6월 현재)

| 순위 | 구단 | 승 | 패 | 무 | 승률 | 연속 |
|----|------|----|----|---|-------|----|
| 1 | SK | 47 | 28 | 5 | 0.587 | 2패 |
| 2 | 두산 | 41 | 33 | 2 | 0.539 | 5패 |
| 3 | KIA | 40 | 34 | 4 | 0.513 | 2패 |
| 4 | 롯데 | 39 | 40 | 0 | 0.494 | 2승 |
| 5 | 삼성 | 37 | 40 | 0 | 0.481 | 2승 |
| 6 | 히어로즈 | 36 | 39 | 1 | 0.474 | 2패 |
| 7 | LG | 36 | 41 | 3 | 0.450 | 3승 |
| 8 | 한화 | 26 | 47 | 3 | 0.342 | 2승 |

들의 합류가 당장 팀 전력 상승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이번주 KIA 승패의 키는 집중력에 더 의지 될 전망이다.
더위가 찾아오면서 부쩍 투·타에서 집중력이 떨어졌다. 지난주 구름은·양현종·서재응은 제구의 날카로움이 떨어지면서 고전을 면치 못했다.
타선의 성급한 승부도 아쉬웠다. KIA는 5일 한화와의 경기에서도 1회 1사1·3투의 대량 득점의 기회에서 1점을 뺏는데 그치며 유원상 공략에 실패했다.
집중력 있는 승부근성이 KIA에게 절실한 한 주가 될 전망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시-KBO 올스타전 성공 개최 협약

광주시와 (사)한국야구위원회(이하 KBO)가 8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2009 CJ 마구마구 프로야구 올스타전’의 성공 개최를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
〈본보 2009년 2월 5일자〉 이날 협약식에는 박광태 광주시장과 유영구 KBO총재가 참석할 예정으로, 시가 추진하고 있는 새 야구장과 관련한 의견도 교환할 것으로 예상돼 귀추가 주목된다.
11년 만에 광주 무등경기장에서 치러지는 프로야구 ‘올스타 전’은 포지션별로 팬들의 투표를 통해 선발된 동군(SK, 두산, 롯데, 삼

성)과 서군(KIA, 한화, 히어로즈, LG)이 승부를 겨우며, 홈런 레이스, 올스타 기념촬영 등 다양한 이벤트도 선보일 예정이다.
또 이번 올스타전에는 지난해 베이징 올림픽에서 등장했던 ‘승부차기’와 홈런 타구에 대한 비디오판정도 도입돼 야구팬들의 재미가 한층 배가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협약에 따라 시와 KBO는 대회 홍보와 마케팅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는 한편, 시가 입장권 수입의 10% 정도 범위에서 받는 무등경기장의 사용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윤현석기자 chadoll@kwangju.co.kr

화순고 콜드승

대형기 고교야구 원주고 꺾어

전남을 대표하는 화순고가 제31회 대형기 전국고교야구 대회에서 강원 원주고를 상대로 10-0 콜드승을 거두며 상대한 출발을 했다.
화순고는 6일 대구시민운동장 야구장에서 열린 원주고와의 대회 1회전에서 ‘나홀로

5타점’을 기록한 4번 신진호의 맹활약에 힘입어 6회 10-0 콜드승으로 16강에 진출했다. 타선의 확실한 지원을 받은 고영표는 6이닝동안 2피안타 3사사구 3탈삼진 무실점의 호투로 마운드를 지키며 승리 투수가 됐다.
대회 개막 첫날 콜드승을 장식한 화순고는 8일 오후 3시30분 안산공고와 8강행을 타투게 된다. 한편 광주 대표로 출사표를 던진 진흥고는 9일 오후 6시 전주고와 ‘전라도 더비’를 벌이게 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